

## 아비얌(아비아)와 아사의 어머니는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성경에 오류인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인 아비얌과 세 번째 왕인 아사의 어머니가 동일하게 마아가(미가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를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아사왕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오류이고 할머니라고 기록해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현대 역본들은 이 부분을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라고 고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신자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과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먼저, 열왕기상 15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상 15:1, 킹흠정)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제십팔년에 아비얌이 유다를 통치하고 (왕상 15:2, 킹흠정)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왕상 15:1, KJV) Now in the eighteenth year of king Jeroboam the son of Nebat reigned Abijam over Judah.

(왕상 15:2, KJV) Three years reigned he in Jerusalem. and his mother's name was Maachah, the daughter of Abishalom.

(왕상 15:9, 킹흠정) ¶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이십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왕상 15:10, 킹흠정)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왕상 15:9, KJV) And in the twentieth year of Jeroboam king of Israel reigned Asa over Judah.

(왕상 15:10, KJV) And forty and one years reigned he in Jerusalem. And his mother's name was Maachah, the daughter of Abishalom.

이렇게, 왕상 15장의 내용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비얌(아비아)와 아들 아사의 어머니가 동일 인물인가?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아사는 아비얌의 아들이니까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라고 기록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신자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비얌과 아사가 부자 관계라는 것은 왕상15장8절에 “아비얌이 죽으니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라는 기록에 근거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반론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링크된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2. 성경신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A. 일부 현대 역본들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즉, 아사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아사의 할머니라고 고쳐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하게 풀린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현대역본들도 꽤 됩니다.)

(왕상 15:10, 쉬운성경) 아사는 사십일 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왕상 15:10, 현대인의 성경)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왕상 15:10, 현대인)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왕상 15:10 공동번역(개정)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1Kg 15:10, NIV) and he reigned in Jerusalem forty-one years. His **grandmother's** name was Maacah daughter of Abishalom.

(1Kg 15:10, NLT)He reigned in Jerusalem forty-one years. His **grandmother** was Maacah, the daughter of Absalom.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인간의 생각대로 고친 것이기 때문에 성경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B. 디렉스 바이블에 인명사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 마아가:Maacah(인명)

(מַאֲכָה , Maacah) 「압제하다」 :르호보암의 아내이며 압살롬의 딸(왕상 15:2, 대하 11:20, 22), 또는 손자 딸이다(대하 13:2, 미가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아가의 오사<誤寫>일 것이다). 또, 아비아왕의 어머니이다. 아비아의 사후 태후로 되었으나, 그녀의 손자 아사는 그녀가 아세라의 가증한 신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위를 폐하였다(대하 15:16). 역대하 13:2 이외의 일곱 곳에는 마아가로 되어 있다.

압살롬(아비살롬)의 딸(대하 11:21)이 이름 역시 <대하 13:2>절에서는 '미가야'로 표기되었는데 '워즈워드'(Wordsworth)는 그가 우상 숭배로 인해 태후의 위에서 폐위되었기에(참조, <왕상 15:13>) '여호와'를 뜻하는 '야'자가 빠지고 '마아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아비아:Apphia(인명)

('Απφία, אֶפְיָה , Apphia)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르호보암의 아들로써 왕위를 계승하였다(대하 12:16).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이다. 르호보암은 아내 18,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마아가를 가장 사랑하여 그의 소생 아비아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다(대하 11:20-22, 왕상 15:2). 그러나 열왕기상 15:10에서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 역대하 13:2에서 아비아의 모친은 우리엘의 딸 미가야로 되어 있다. 미가야가 마아가의 오사(誤寫)라고 하면, 우리엘은 압살롬의 사위가 된다. 열왕기상 14:31- 15:8에서는 아비아를 아비얌으로 표현했다.

디럭스 바이블 인물 검색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두 왕(아비얌과 아사)에 어머니로 기록된 “마아가”라는 이름을 역대하13장에서는 “미가야”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기록자들의 오사(誤寫) 즉 실수라고 언급한 부분이 걸립니다. 성경 기록에 오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는 배치됩니다.

C. 그렇다면, 과연 마아가는 아비얌의 어머니인가? 아사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정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인간이 보기에 모순으로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학자들간에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 1) 아사는 아비얌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이다(Mac Lean).
- 2) 아사는 실제로 자신의 모친을 아내로 삼았다(Hammond, Lange, Ewald).
- 3)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이란 말은 어머니란 말이 아니라 '태후로서 섭정하는 지위와 기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 두번째 견해에 관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qna&write\\_id=68&cate\\_name=%EC%97%B4%EC%99%95%EA%B8%B0%EC%83%81](http://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qna&write_id=68&cate_name=%EC%97%B4%EC%99%95%EA%B8%B0%EC%83%81)

저는 3가지 견해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첫 번째 가능성과 세 번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믿습니다.

첫 번째 견해에 대한 이유는 위에서 링크를 걸어둔 글을 참조하시면 되고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마아가”가 태후로서 아들(아비얌)이 죽고 난 후에, 어린 손자(아사)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왕상 15:13, 킹흠정)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으나

(대하 15:16, 킹흠정) ¶ 또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로 말하건대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베어 낸 뒤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으나

마아가는 아비얌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아사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라는 말이 유대역사에서는 폭넓은 의미로도 쓰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무리가 없습니다. 아비얌왕의 짧은 통치기간(3년) 이후에 어린 아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마아가의 섭정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말씀들을 근거로 그녀는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감행할 때에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마아가를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 동안 마아가가 태후로서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3. 정리

아비얌과 아사의 어머니가 동일하게 “마아가”라고 기록되었다고 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뿐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 소수사본을 따른 일부 현대 역본들조차도 본문의 내용을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어머니, 딸, 아들”이란 의미는 상황에 따라 좁은 의미 혹은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문에서 제기된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견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100% 정확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신자라면 성경에서 밝혀준 범위 내에서 성경에 완전성, 무오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일부 현대역본들처럼 성경을 변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구약은 유대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논쟁만 불러일으키며 영적인 유익 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후퇴하게 만드는 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경계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1:4)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